



주 제:	“ 욱심 ”	“연중 제 27 주일 ”	2008 년 10 월 5 일
복음 묵상:	[마태 21,28-32]	[에제 18,25-28]	[필립 2,1-11]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라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나서, 죽을 때 생전에 누리고 가졌던 것 중에서 그 어느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더 나아가서 모든 생명체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생명체 중에서 사람만이 이 진리를 깨달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유일하게 그 진리를 망각하고 또 애써 외면하면서까지 진리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무는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다음, 계절이 바뀌면 열매와 잎을 떨구며 가진 것들을 버립니다. 동물들은 자신들이 먹어야 할 만큼만, 살아남기 위한 만큼만 먹고 보관합니다.

유일하게 인간만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먹고, 모으고,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기도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의 주인도, 하느님 나라의 주인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느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만드신 세상이라는 밭에서 포도나무로, 소작농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주인이고 우리는 소작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빌려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의정부)

### 1.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김진희 유스티나 자매님 부친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반주자 최상진 엘리사벳 자매님 10/2-10/14 예정으로 유럽 여행을 떠납니다. 주님의 축복안에 즐겁고 기쁜 여행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이 상규 토마스 아퀴나스 형제님 일요일 출장을 떠나셨습니다. 하시는 일 다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 조 경자 율리아나 자매님 10/5-11/9 예정으로 서울로 떠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좋은 여행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연 하연 아네스 자매님, 일요일 아침시간 강의 관제로 2개월 가량 성가대 참석을 하지 못합니다. 공부하는 동안 주님의 지혜주시어 좋은 성과 거두고 돌아오시길 기도합니다.
- 이은순 아네스 자매님 아직 LA 에서 일이 끝나지 않아 10/6 일해야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최 효원 도미니카 자매님 모친의 간병차 9/27 일 한달 예정으로 한국에 가셨습니다. 하루 속히 건강을 되찾으시고 기쁨 속에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김 재훈 세실리아 자매님과 김 순덕 카리따스 자매님이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채 간병중에 있어오니 하루 빨리 건강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중에 주님의 자비를 청하여 주십시오.

#### 알림

성탄 성가 연습은 앞으로 12 주 동안 연습합니다. 보다 열심히 주님이 주신 목소리를 갈고 닦아 좋은 소리를 온 회중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갈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겠다. 어떤 지주가 포도원을 하나 만들고 울타리를 둘러 치고는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큰 환을 파고 땅대를 세웠다. 그리고는 그것을 소작인들에게 도지로 주고 멀리 떠나 갔다. 포도철이 되자 그는 그 도조를 받아 오라고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려 주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 죽였다. 지주는 더 많은 종들을 다시 보냈다. 소작인들은 이번에도 그들에게 똑같은 짓을 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내 아들이야 알아 보겠지' 하며 자기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그 아들을 보자 '저자는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이고 그가 차지할 이 포도원을 우리가 가로채자' 하면서 서로 싸고는 그를 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어 내어 죽였다. 그렇게 했으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 오면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모조리 죽여 버리고 제때에 도조를 바칠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서에서,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 우리에게는 놀랍게만 보인다'  
 고 한 말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잘 들어라. 너희는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며 도조를 잘 내는 백성들이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1분 명상

♡ "무엇을 비웠느냐?" ♡ 법정 스님



사람마다 생각하는 대로 다 버릴 수 있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대로 다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버릴 수 없는 것은 그 어느 것 하나 버리지 못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 하나 얻지 못하니  
 이것이 너와 내가 숨 철떡이며  
 욕심 많은 우리네 인생들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라 하지 않더냐.

사람들마다 말로는 수도 없이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린다고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마음속에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버려야만 하는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더 채우려 한단 말이더냐.

사람마다 마음으로는 무엇이든 다 채우려고 하지만  
 정작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몸 밖에 보이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허울 좋고 게걸스런 탐욕 뿐일 진데.

사람아...  
 그대가 버린 것이 무엇이며  
 얻는 것 또한 그 무엇이었던 말이더냐.  
 얻는 것이 비우는 것이요,  
 비우는 것이 얻는다 하였거늘  
 무엇을 얻기 위해 비운단 말이더냐.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것은  
 끈적거린 애착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과 불만족스러운 무거운 삶 뿐만 것을  
 비울 것이 무엇이며 담을 것 또한 무엇이라 하더냐....

